

신한금융그룹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출범

인니 스타트업 육성 통해 신남방 핀테크 로드 개척

코하이브 본사 12층에 사무실
국내 4개사, 현지 3개사 선발
해외진출 육성 등 적극 지원



신한금융그룹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왼쪽 세번째부터)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정유신 센터장,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이 신(新)남방 핀테크 로드로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다.

신한금융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경영진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원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 글로벌 최대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인도네시아 법인 임직원과 코하이브(COHIVE) 임직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신한퓨처스랩 베트남'에 이은 두 번째 해외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1기로 최종 선발했으며, 현지 스타트업 3개사도 선발해 육성 및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지역의 최대 경제대국이며, 신한금융의 주요 글로벌 전략거점이다.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스타트업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현지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신한은행 진 행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스타트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역시 "신한퓨처스랩"은 국내 대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해외거점을 보유하고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해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도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 개척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에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는 입주한 스타트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자카르타 쿠닝간의 코하이브 본사 12층에 약 120평 규모로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약 40 여명이 상주할 수 있는 오픈 워크스테이션과 약 70여명이 동시에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계단형라운지 및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 1기로 선발된 4개 스타트업의 기업설명회와 현지 사무소 출범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공유 오피스 1위 업체인 코하이브와의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코하이브는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신한금융은 코하이브와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발굴, 육성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벤처캐피탈(VC)투자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의 협업을 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사의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a)	2019 상반기(b)	증감(률)(b-a)
1. 총수익	118,101	120,951	124,149	3,198 (2.6)
2. 총비용	103,910	111,283	114,744	3,461 (3.1)
3. 당기순이익(IFRS 기준)(1-2)	14,191	9,668	9,405	△263 (△2.7)
4. 대손준비금 전입액	8,821*	1,567	1,700	133 (8.4)
5.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감목규정 기준)(3-4)	5,370	8,101	7,705	△396 (△4.9)

*17.3월 일부 카드사의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및 17.6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복수 카드로 이중 차주의 카드론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대손준비금 전입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카드사 상반기 순익 9405억...2.7% ↓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발목
연체율은 1.61%로 0.14%p↑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감소했지만 할부 수수료 수익과 카드론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9405억원으로 전년 동기(9668억원) 대비 2.7%(263억원) 감소했다.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은 7705억원으로 전년 동기(8101억원) 대비 4.9%(396억원) 줄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0.2%(134억원) 감소했고 할부 수수료 수익은 23%(1789억원), 카드론 수익은 3.7%(686억원) 늘어 총수익이 2.6%(3198억원) 증가했다. 다만 대손비용,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1036억원), 9.7%(842억원), 5.3%(1725억원) 늘어 총비용이 3.1%(3461억원) 늘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61%로 전년 동기(1.47%)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대출 부문의 연체율(2.56%)이 전년 동기(2.33%) 대비 0.23%포인트 상

승한 영향이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3.1%로 전년 동기(23.2%)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레버리지비율은 4.7배로 전년 동기(4.8배) 대비 0.1배 줄었다.

상반기 카드 발급매수는 늘었다.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870만매로 전년 동기(1억226만매) 대비 6.3%(644만매) 증가했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도 1억1178만매로 전년 동기(1억1148만매) 대비 0.3%(30만매) 늘었다.

카드구매 이용액도 증가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05조6000억원) 대비 5.1%(20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카드대출 이용액은 감소했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9000억원) 대비 1.1%(6000억원) 줄었다. 카드론 이용액(23조원은)은 1.3%(3000억원) 늘었지만 현금서비스 이용액(29조3000억원)은 3.0%(9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해 카드대출 연체율 추이 등 건전성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등 카드업계 신규 수익원 창출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24시간·365일 banking서비스로 젊은층 공략

저축은행 'SB톡톡 플러스' 출시 모바일 banking으로 지역하게 돌파 금리인하 요구 등 비대면 강화

국내 66곳 저축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 통합 모바일 banking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SB톡톡 플러스'가 9일 출시됐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저축은행 디지털뱅킹 SB톡톡 플러스 오픈 기념식에서 "모바일 banking을 통해 저축은행이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디지털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톡톡 플러스는 앱 하나로 ▲예·적금 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신청 ▲카카오톡 계좌이체 ▲간편인증 등의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SB톡톡 앱의 이용 시간은 평일로 제한됐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저축은행 수가 적었다. 반면 SB톡톡 플러스는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며, 간편송금 등 연계서비스도 탑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9일 저축은행중앙회 사옥 지하 1층에서 열린 '저축은행 디지털뱅킹 시스템' 오픈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재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간편송금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에 따라 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SB톡톡 플러스는 또한 기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했던 ▲대출철회 및 금리인하요구 ▲증명서발급 ▲비밀번호변경 등의 민원사항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편의

를 높였으며 ▲지문인증 ▲패턴 ▲PIN(간편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앙회는 향후 송금 인증 방법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플러스로 젊은층을 공략해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을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용채 저축은행중앙회 IT본부장은 "자사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타행 앱과 비교해, 중앙회의 SB톡톡 플러스는 66개 저축은행 상품을 한 곳에서 취급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고금리 저축 상품을 찾아다니는 젊은 금리 노마드족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증가해 향후 일일 거래량 백만건을 돌파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SB톡톡 플러스는 지역 기반의 저축은행 영업구역 한계를 해소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며 "고객 저변을 확대해 업계의 영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신한카드, 안랩기술 적용해 보이스피싱 방지

'신한페이판'에 보안솔루션 탑재

신한카드 고객들은 이제 신한페이판, 신한카드 앱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정보보안 업체인 안랩과 함께 고객의 스마트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 동작 여부를 탐지해 사기 대출을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보안솔루션

을 신한페이판(PayFAN)에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보안솔루션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고객에게 접근한 후, 고객의 스마트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로 카드론 대출을 실행시켜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즉, 고객이 신한페이판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악성 앱이 탐

지된 경우 카드론 대출이 차단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스타트업 업체인 '인피니그루'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특화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통화패턴, 메시지, 악성 어플리케이션 분석 등을 통한 금융 사기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